

목 차

📁	글로벌 AI 동향	1
해외	- EU, 세계 최초 AI 규제법 승인...2026년 전면시행	1
	- "인간처럼 보고 듣고 말한다"...오픈AI, 'GPT-4o' 출시	2
	- AI, 자동차 제조 확 바꿨다...'고효율·저비용' 혁명	3
	- 이젠 AI도 '가성비 전쟁'...언어모델 작게, 데이터센터 더 키운다	4
	- AI가 만든 가짜사진, AI로 잡아낸다...오픈AI, 검증도구 개발	5
	- '라마 3', 제미니·클로드·GPT-4 성능 근접... ..	6
	- MS, 구글·오픈AI와 정면 승부...거대 AI 모델 '마이-1' 자체 개발 ..	7
	- "‘애플 AI 비서’ 시리즈, 챗GPT로 새 단장...내달 WWDC서 공개"	8
	- 'AI 지각생' 애플, TSMC 손 잡고 자체 칩 개발 나선다	9
기업	- 결제사기 방지에 AI 활용하는 글로벌 금융사..."적발률 4배 높여"	10
	- 각양각색 AI 서비스 총집합..."국제인공지능대전' 가보니	11
개인 정보	- 개인정보위-과기정통부, AI·디지털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손잡는다	12
	- 인공지능(AI) 개발·서비스를 위해 '공개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' 논의한다...	13
	-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은 강화하고 국민 불안은 줄였습니다	14



EU, 세계 최초 AI 규제법 승인...2026년 전면시행

- 유럽연합(EU)이 세계 최초 포괄적 성격의 인공지능(AI) 규제법을 최종 승인
 - 이 법은 AI를 활용 위험도 별로 분류해 규제 수위를 달리 적용하는 게 특징이며, AI 규제와 관련된 국제 표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
 - EU 교통·통신·에너지이사회는 2021년 초안이 발의된지 3년 만인 2024년 5월 21일(현지시간)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'AI법'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힘
 - 마티유 미셸 벨기에 디지털 장관, "AI법 채택은 EU에 중요한 이정표"라며 "이 법을 통해 유럽은 신기술을 다룰 때 신뢰성·투명성·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유럽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"이라고 언급
- AI법은 이달 중 관보 게재를 거쳐 다음달 EU 27개 회원국 역내에서 정식 발효될 예정
 - 발효 6개월 뒤부터 금지 대상 AI 규정이 우선 시행되고 1년 후부터는 범용인공지능(AGI)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며,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은 2026년 중반 이후가 될 전망

< Artificial Intelligence 자료사진 (출처: REUTERS) >



- 세계 최초의 포괄적 성격의 AI 규제법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AI 규제 모델구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며,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AI법의 제재 수단이 강력하다는 점임
 - EU 집행위원회는 AI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3,500만 유로(약 518억 원) 또는 글로벌 매출의 7%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조치
 - 매튜 홀먼 크리스 미국 로펌 파트너변호사, "EU의 AI법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생성형 AI 시스템에 많은 자금을 투입한 미국 빅테크 업체들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" 이라고 언급

출처 : 한국경제, EU, 세계 최초 AI 규제법 승인...2026년 전면시행 (2024.5.22.)

"인간처럼 보고 듣고 말한다"...오픈AI, 'GPT-4o' 출시

- 오픈AI, 라이브 스트리밍 이벤트를 통해 기존 AI 대규모 언어모델(LLM)인 GPT4의 성능을 대폭 개선한 GPT-4o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힘
 - GPT-4o의 'o'는 하나의 통합된 AI 모델을 의미하는 '옴니모델(omnimodel)'을 의미
 - GPT-4o는 음성 인식,스피치-투-텍스트(Speech to text), 이미지 인식 기능 등이 통합된 대화형 인터페이스 형태로, 자연스러운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멀티모달(다중 모드) 모델
 - 이는 음성, 텍스트 또는 이미지로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명령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
- 기존GPT 모델이 글자(텍스트)를 통해 명령하는 방식이라면, GPT-4o는 음성, 텍스트, 시각물을 입력하면 AI가 추론하고 그 결과를 거의 실시간으로 내놓는 방식
 - 평균 응답시간은 GPT-3.5는 2.8초, GPT-4는 5.4초인데 반해, GPT-4o의 경우에는 평균 320밀리초로 기존 모델보다 획기적으로 시간을 단축시킴

< 오픈AI CTO 미라 무리타가 GPT-4o를 소개하는 모습 >



- 미라 무리타 오픈AI CTO, “챗GPT가 이제 메모리 기능도 갖추게 돼 사용자와 이전 대화를 통해 학습하고 실시간 번역을 할 수 있게 됐다”며 “사용 편의성 측면에서 큰 진전을 이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”라고 언급
 - 또한, 새 모델은 50개 언어를 지원하도록 품질과 속도를 개선하여 GPT-4 터보(지난해 11월 출시 모델)보다 두 배 더 빠르고 비용은 2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
- GPT-4o의 출시는 빠르게 진화하는 AI 환경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됨
 - 최근 앤트로픽, 코히어, 구글 등이 GPT-4의 성능과 일치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AI모델을 출시하고 있는데, 이번 GPT-4o 출시로 인해 한 번 더 ‘초격차’를 늘린 것으로 풀이됨

출처 : 이데일리, "인간처럼 보고 듣고 말한다"...오픈AI, 'GPT-4o' 출시 (2024.5.14.)

AI, 자동차 제조 확 바꿨다... '고효율·저비용' 혁명

- 미국 시사주간지 '뉴스위크', 자동차 산업에 부는 생성형 인공지능(AI) 광풍에 대해 "인공지능이 자동차 제작 방식을 바꾸고 있다"고 진단
 - 현대자동차, 토요타 등 글로벌 완성차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메르세데스-벤츠, BMW 등도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 중
- AI를 이용한 첨단 차량 제작은, 품질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을 단순화하여 원가를 낮추는 등 제조업체의 이익향상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향후 주된 제조방식으로 자리 잡을 전망
 - 현대차, 지난해 11월 AI, 로봇틱스 첨단기술이 적용되어 생산부터 판매까지 통합된 '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(HMGICS)' 준공식을 진행
 - 벤츠, 공장 건설 과정에서 AI를 이용한 디지털 트윈(현실세계 기계·장비·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하는 기술) 기술을 사용하였고, 가상 세계에서 문제를 예측하는 방식을 통해 건설 속도는 두 배로 높이면서 수정 과정은 50%로 절감하는데 성공함
 - 토요타, 2016년부터 AI를 적극 활용해 왔으며 토요타 세이프티 커넥트에 탑재된 AI는 사고 시 충돌 시기와 위치를 파악하고 콜센터에 알림을 보내는 서비스로 발전
 - 혼다, 딥러닝과 AI로 부품을 설계하고 공장의 차량 검사와 테스트 단계까지 AI를 활용 중

〈 메르세데스-벤츠 헝가리 케치케메트 공장 전경 (출처: 메르세데스-벤츠) 〉



출처 : ZDNET Korea, AI, 자동차 제조 확 바꿨다... '고효율·저비용' 혁명 (2024.5.16.)

이젠 AI도 '가성비 전쟁'...언어모델 작게, 데이터센터 더 키운다

- AI(인공지능) 시대 빅테크와 국내 기업들은 데이터센터를 증설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는 한편 소형언어모델(SLM) 출시를 이어가고 있음
 - 마이크로소프트(MS)와 오픈AI 연합은 2028년까지 1,000억 달러(135조 원)를 투입해 AI 데이터센터를 짓는 프로젝트를 계획중이며, 국내에서는 LG유플러스가 경기도 파주에 초거대 인터넷 데이터센터(IDC)를 짓는다고 발표
 - 이와 함께 네이버가 초거대 AI '하이퍼클로바X'의 경량화 모델(HCX-DASH)을 출시하는 등 전력과 자원 소모는 덜하지만 LLM(거대언어모델)만큼 똑똑한 SLM(소형언어모델)을 통한 '효율전쟁'도 한창인 상황

< 데이터센터 (출처: 게티이미지) >



- AI 기술·서비스 개발을 위해선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가 중요하지만, 기술 개발 이후 서비스에 적용하는 단계로 갈수록 '가성비'가 점점 중요해짐
 -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, “빅테크 기업들은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, 국내외 여러 기업이 SLM 개발에 관심을 갖는 등 AI 경쟁이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”면서 “도메인(산업)별 특화된 언어모델을 만들 때는 LLM 보다 SLM이 효율적”이라고 지적
- 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가 국내 상업용 데이터센터의 개수를 2023년 40개에서 2027년 74개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데이터센터 및 언어모델에 대한 경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

출처 : 중앙일보, 이젠 AI도 '가성비 전쟁'...언어모델 작게, 데이터센터 더 키운다 (2024.5.8.)

AI가 만든 가짜사진, AI로 잡아낸다...오픈AI, 검증도구 개발

- 인공지능(AI) 개발 스타트업 오픈AI, 특정 이미지가 자사의 AI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도구 공개
 - 오픈AI의 검증 도구는 오픈AI의 이미지 생성 AI인 '달리 3'(DALLI-E 3)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최대 98%의 정확도로 찾아낼 수 있음
 - 다만, 해당 이미지가 캡처되거나 일부 잘린 상태라면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으며 전체적인 색감이 추후 수정됐을 경우 정확도는 더 크게 떨어진다고 오픈AI는 밝힘

〈 AI이미지와 오픈AI 로고 (출처: 연합뉴스 자료사진) 〉



- 오픈AI의 이번 검증 도구는 AI 생성 이미지를 구별하기 위해 삽입되는 워터마크에 기대지 않고 자체기술을 통해 이미지의 AI 생성 여부를 판별
 - 많은 AI 회사들은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AI가 생성한 사진이나 영상에 자체적으로 만든 워터마크를 삽입하지만, 이는 추후 쉽게 삭제될 수 있기 때문
- 오픈AI의 새로운 도구는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AI를 이용한 허위·조작 이미지가 대거 유포될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
 - 오픈AI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은 최근 잇달아 이미지 생성 AI를 선보였고, 미국 정치권에선 유권자들이 AI가 만든 거짓 사진 등에 속아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상황
 - 오픈AI의 정책기획 책임자 데이비드 로빈슨, "선거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이러한 작업을 이끌고 있다"며 "이는 우리가 정책 담당자들로부터 가장 첫 번째로 듣는 우려 사항"이라고 언급

출처 : 연합뉴스, AI가 만든 가짜사진, AI로 잡아낸다...오픈AI, 검증도구 개발 (2024.5.8.)

'라마 3', 제미니·클로드·GPT-4 성능 근접...

- 메타가 올 여름 출시 예정인 '라마 3', 성능 면에서 다른 오픈 소스보다 뛰어난 것은 물론 기존 첨단 모델의 성능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음
 - 미국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, 메타가 출시 예정인 라마 3의 4050억 매개변수 버전이 오픈AI, 구글, 앤트로픽 등 폐쇄형 대형언어모델(LLM) 성능에 견줄만한 수준이라고 밝힘
 - 라마 3의 4050억 매개변수 버전(400B+)은 구글의 '제미니 프로'(90점), 앤트로픽의 '클로드 3 오피스'(88.2점), 오픈AI의 'GPT-4'(86.8점)에 이어 84.8점을 기록
 - 또한, 메타가 앞서 공개한 라마 3의 700억 매개변수 버전(70B)도 현존 최고 성능의 오픈 소스 LLM으로, 오픈AI의 GPT-3.5, 앤트로픽의 클로드 3 소넬트 및 구글의 제미니 프로 1.5와 동등한 수준의 성능을 기록
- 메타, "우리는 라마 3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방향을 기준으로 모델을 선택했다"고 설명
 - 메타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"멀티모달, 다국어 대화 등 더 강력한 기능을 갖춘 여러가지 버전의 새로운 라마 3 버전들이 출시될 것"이라고 밝힘

< 라마3 (출처: 메타) >



출처 : AIT타임스, '라마 3 400B+', 제미니·클로드·GPT-4 성능 근접... "컨텍스트 창 확대할 것" (2024.5.16.)

MS, 구글·오픈AI와 정면 승부...거대 AI 모델 '마이-1' 자체 개발

- 마이크로소프트(MS)가 구글, 오픈AI와 경쟁할 만한 대규모 자체 인공지능(AI) 모델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
 - 디인포메이션, MS는 '마이(MAI)-1'이라고 부르는 새 AI 언어모델을 훈련시키고 있으며, 최근 AI 사업 책임자로 영입한 무스타파 술레이만이 해당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고 밝힘
 - 술레이만은 AI 바둑 프로그램 '알파고'를 개발한 딥마인드 공동창업자이자 AI 스타트업 인플렉션 최고경영자(CEO)를 지낸 인물로 올해 3월 MS에 합류한 바 있음
- 마이-1은 약 5,000억 개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, 매개변수는 AI가 연산을 위해 고려하는 변수로, 그 수가 많을수록 성능이 뛰어난 것이 일반적
 - 오픈AI의 GPT-4 매개변수는 1조 개 수준으로 추정되며, 메타의 라마3의 경우 4,000억 개 버전이 개발 중
- 생성형 AI 열풍을 불러온 오픈AI의 최대 투자사인 MS가 자체 LLM을 개발 중이라는 점이 특이할만한 사항
 - 디인포메이션, "MS가 AI 분야에서 일종의 이중 궤적을 추구하고 있다"고 언급하면서 "MS가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데 비용이 저렴하고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가동할 수 있는 SLM과 더 큰 최첨단 AI 모델을 모두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"고 평가
- 케빈 스콧 MS 최고기술책임자, "우리의 협력이 가져올 영향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"며 MS와 오픈AI의 협력 관계를 강조
 - 이어 "AI 모델은 MS의 거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, 운영 프로세스에 사용된다"며 "앞으로도 더 많은 AI 모델이 있을 것"이라고 언급

출처 : 경향신문, MS, 구글·오픈AI와 정면 승부...거대 AI 모델 '마이-1' 자체 개발 (2024.5.7.)

“애플 AI 비서’ 시리, 챗GPT로 새 단장…내달 WWDC서 공개”

- 뉴욕타임즈, 애플의 인공지능(AI) 음성인식 비서 시리가 오픈AI의 챗GPT와 손잡고 새롭게 단장할 예정이라고 보도
 - 애플과 오픈AI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,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“애플과 오픈AI가 아이폰 새 운영체제인 ‘iOS18’에서 챗GPT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계약 조건을 마무리 짓고 있다”고 보도
 - 2011년 애플 최초의 음성비서로 모든 아이폰에 탑재되기 시작한 시리는 이용자와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거나 질문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고, 그로 인해 시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수년간 개별 요청에 응답하는 정도에 머물러야 했음
 - 2024년 6월 연례세계개발자콘퍼런스(WWDC)에서 공개될 시리는 한 번에 질문 하나만 받던 기존의 모습에서 탈피해 챗GPT처럼 이용자와 채팅하는 모습을 선보일 것으로 전해짐

〈 아이폰에 챗GPT 접속 화면이 떠 있는 모습 〉



- 그간 기술 업계에서 AI 경쟁에 뒤처졌다는 지적을 받아온 애플은 ‘시리+챗GPT’를 통해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, 지난 분기 세계 아이폰 출하량이 10% 감소하는 등 치열해진 스마트폰 업황도 변화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
 -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(CEO), “애플은 계속해서 더 많은 제품에 AI 기술을 추가하겠지만, 매우 신중하게 할 것”이라고 언급
 - 블룸버그, “구글과 애플이 구글의 생성형 AI인 제미니이 사용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”이라며 “이는 애플이 자사 장비에 AI 기능을 도입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”이라고 설명

출처 : 이투데이, “‘애플 AI 비서’ 시리, 챗GPT로 새 단장…내달 WWDC서 공개” (2024.5.12.)

‘AI 지각생’ 애플, TSMC 손 잡고 자체 칩 개발 나선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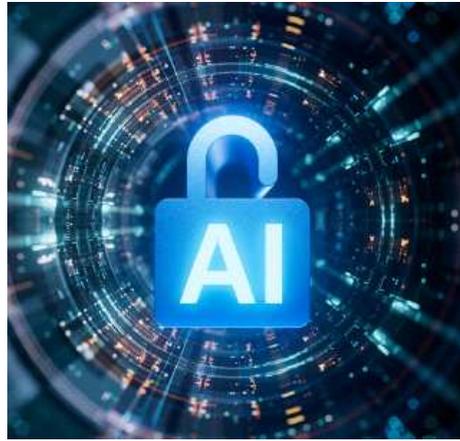
- 애플, 신형 아이패드를 시작으로 올해 공개될 아이폰·맥북 등 기기에서 생성 AI 기능을 전면 도입하는 데 이어 서버용 AI 칩도 자체 제작할 것으로 알려짐
 - 구글·마이크로소프트(MS) 등 빅테크 기업이 자사서비스에 맞는 자체 칩을 개발 중인 가운데 애플로 인하여 시장 판도가 다시 한 번 출렁일 것이라는 분석
 - 월스트리트저널(WSJ), 애플은 최근 ‘ACDC’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통해 AI 데이터센터 서버용 자체 칩을 개발 중이며, 대만 TSMC가 생산을 맡을 것이라고 보도
- 현재로서는 엔비디아의 AI 칩을 완벽히 대체하기보다는, AI 모델의 훈련·추론 중 추론 기능에 적합한 반도체를 개발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
 - 훈련이 텍스트·이미지·음성 등 여러 데이터를 생성 AI 모델에게 학습시키는 과정이라면, 추론은 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AI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하거나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과 직결
 - 현재 AI 모델 개발에 가장 많이 쓰이는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(GPU) ‘H100’은 대체로 AI 훈련에 집중적으로 활용되는 반도체
 - 이미 학습을 마친 AI 모델이 추론을 수행하려면 성능보다는 반응 속도나 효율성이 더 요구되며, 추론 분야는 엔비디아 반도체를 대체할 여지가 큰 분야로 꼽힘
 - MS·아마존 등도 AI 추론용 특수 칩을 자체 제작하고 있으며,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‘마하-1’ 역시 추론에 특화된 반도체임
- 월스트리트저널,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“애플이 M4 칩셋을 활용해 추론과 같은 특정 AI 기능을 서버에서 구동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”며
 - “M4 칩셋은 애플이 AI 기능 최적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해 만든 첫 번째 칩으로, 향후 애플의 AI 전략을 가늠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전망

출처 : 중앙일보, ‘AI 지각생’ 애플, TSMC 손 잡고 자체 칩 개발 나선다 (2024.5.8.)

결제사기 방지에 AI 활용하는 글로벌 금융사...“적발률 4배 높여”

- 하나금융경영연구소, 글로벌 금융회사가 결제 사기 방지를 위해 인공지능(AI)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 자료를 발간
 - 보고서(오유진 연구위원)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디지털 지갑, 후불결제 같은 신규 금융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결제 사기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
 -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, 글로벌 신용·직불카드 사기 관련 손실액은 2014년 181억 달러(약 25조 원)에서 2022년 334억 달러(약 46조 원)로 확대(연평균 8% 증가)되었다고 분석

〈AI 자료사진(출처: 게티이미지뱅크)〉



- 글로벌 금융사들은 결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, 실시간 이상 패턴 감지, 위험 관리 등의 신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
 - 비자(VISA), 최근 상황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거래위험 점수를 산정해 카드 거래를 더 잘 관리 할 수 있도록 설계한 VISA 심층 승인(VDA) 제품을 새로 공개하였고, 실시간 거래 보호를 위해 딥러닝 AI 탐지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도 선보임
 - 비자는 이처럼 AI 기반 사기 방지 분야에 5년 간 100억 달러(약 13조 8,000억 원) 이상을 투자해 왔으며, 그 결과 지난해 사기 방지 실적이 400억 달러(약 55조 원)에 달함
 - 마스터카드, 최근 연간 1,250억 건의 거래 데이터를 학습하는 자체 AI 시스템을 구축해 사기 탐지율을 최대 4배까지 높일 수 있게 됨
- 오 연구위원, “딥페이크 등 정보기술 부작용과 데이터 유출사고 등으로 사기 영역이 다양화되고 행태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노력도 더욱 더 요구되고 있다”고 지적

출처 : 헤럴드경제, 결제사기 방지에 AI 활용하는 글로벌 금융사...“적발률 4배 높여” (2024.4.21.)

각양각색 AI 서비스 총집합...‘국제인공지능대전’ 가보니

- 국내 인공지능(AI) 생태계 조성 및 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국제인공지능대전은 5월 1일부터 3일까지 11개국 300여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450여 부스 규모로 개최
 - 참관객 수 역시 지난해 3만여 명에서 올해 4만여 명으로 늘어 AI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증명
- AI 기업 페르소나AI의 AI 콜봇 ‘소나 콜(SONA CALL)’을 활용하면 고객은 24시간 상담 연결이 가능하며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문의가 가능
 - 소나 콜의 도입 이후, 유선 상담 문의는 22%가 감소하고 만족도와 평균 응답률은 각각 83%, 71%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음
 - 페르소나AI 관계자, “고객들의 경우 단순 업무는 대기하지 않고 빨리 처리할 수 있고 상담원들에게는 심층적인 상담으로 이어주는 역할이 될 수 있다”고 언급
- AI 서비스 전문 기업 이스트소프트, 가상 인간과 챗GPT를 융합한 다양한 ‘AI 휴먼’ 서비스들을 소개
 - AI 휴먼이 탑재된 대화형 AI 키오스크의 경우 자연어 처리가 가능한 대형언어모델(LLM), 규칙 기반 시스템 방식을 채택해 클라이언트의 니즈에 따라 실시간 대화가 가능하도록 구현
 - 이스트소프트 관계자, 해당 서비스는 한국어, 영어, 스페인어 등 다국어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AI 휴먼을 생성 가능하다고 설명
- 셀바스AI, AI 의료 음성인식 제품 ‘셀비 메디보이스(Selvy MediVoice)’를 선보이며 해당 서비스로 영상의학과, 핵의학과, 응급의료 및 긴급한 의료 환경에서 전자건강기록 등의 기록이 필요한 곳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
 - 셀바스AI 관계자, “과거 의료진들은 엑스레이나 MRI 등 영상 데이터를 판독할 때 하나씩 보면서 타이핑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었다”며 “메디보이스를 활용하면 마이크에 대고 결과를 입력하면 말하는 즉시 빠르고 정확하게 의료기록을 작성해 준다”고 언급
- 인지·언어 재활 솔루션 기업 마인드허브, AI 전산화 인지 재활 프로그램 ‘제니코그(Zenicog)’를 출시
 - 해당 서비스는 기초 테스트를 통해 분석한 데이터로 AI 훈련을 추천함으로써 이용자의 언어 이해·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, 주로 노년층과 발달 장애, 인지 재활이 필요한 이들에 도움을 줄 수 있음

출처 : 테크월드, 각양각색 AI 서비스 총집합...‘국제인공지능대전’ 가보니 (2024.5.16.)

개인정보위-과기정통부, AI·디지털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손잡는다

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「개인정보위-과기정통부 정책협의회」를 출범하고, 4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

- 정책협의회는 AI·디지털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발족됨
- 최장혁 부위원장과 강도현 제2차관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AI·디지털 및 개인정보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,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

〈주요 논의 내용〉

- ① (통신 마이데이터)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'23.3월에 개정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하위법령 마련 등 협력을 추진하기로 결정
- ② (가명정보 경진대회) 양 부처에서 운영하던 가명정보 활성화 경진대회를 금년부터 통합 운영하여, 저변 확대 및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결정
- ③ (인공지능 보이스피싱 대응) 날로 지능화되어가는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보이스 피싱 범죄로 신고된 음성 파일에서 범인의 음성정보(데이터셋)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
- ④ (ICT규제샌드박스 특례지정 지원)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혁신적인 제품·서비스모델이 특례로 지정되어 실증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향후 개인정보활용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간의 의견도 청취하는 등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기로 결정
- ⑤ («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」 협력) 디지털 심화 시대 대응을 위해 「디지털 권리장전」을 기반으로 마련 중인 범정부 「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」 계획과 관련,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범체계 정립 및 제도개선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결정

■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, “앞으로 과기정통부와 함께, 마이데이터 등 국민 체감도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”라고 언급

-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, “개인정보위와 협력하여 혁신적인 제품·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, 개인정보와 관련된 국민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고,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”고 밝힘

출처 : 개인정보보호위원회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, 개인정보위-과기정통부, AI·디지털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손잡는다 (2024.4.30.)

인공지능(AI) 개발·서비스를 위해 '공개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' 논의한다

- 개인정보보호위원회, 5월 3일 오후,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「AI 프라이버시 민·관 정책 협의회」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「AI 개발·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(안)」에 대해 논의
 - 챗GPT 등 대규모 언어모델(LLM) 개발의 핵심원료인 공개된 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, 명확한 규율체계가 없어 회색지대가 발생하고 현장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
 - 이는 AI 학습에 필수적인 공개된 데이터 활용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고, 공개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
 - 이에 개인정보위는 작년 11월부터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를 중심으로 전통적 개인정보 처리와 구분되는 AI 학습·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보완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
- 개인정보위는 이날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제시한 의견을 검토·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거쳐 5월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·발표할 방침
-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, “국제적으로는 대규모 AI 모형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가 조만간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는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”이라며
 - “온라인상 공개된 정보를 AI 학습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”고 지적
- 공동의장인 배경훈 LG 인공지능 연구원장, “생성형 AI의 발전은 점점 더 많은 학습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, 안전한 공개 데이터 활용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”면서
 - “이에 AI 프라이버시 민·관 정책협의회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시의적절하게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,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AI 기술발전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힘
-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, “미국, 영국, 프랑스 등 주요국도 웹 스크래핑 방식으로 수집한 공개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,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”고 밝힘

출처 :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, 인공지능(AI) 개발·서비스를 위해 '공개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' 논의한다 (2024.5.2.)

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은 강화하고 국민 불안은 줄였습니다

- 개인정보보호위원회, 5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
- ①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전면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 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개정으로 온라인-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일원화하고,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
 - 또한,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(설명 요구·거부 등) 신설,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였음
 - ② 급속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
 - 글로벌 빅테크 기업(구글·메타)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·이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,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인 1,000억 원을 부과하는 등 총 609개 기관을 조사·처분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
 - 아울러, 개인정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(CPO)가 독립성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‘전문 CPO 지정 제도’를 도입
 - ③ 인공지능 시대,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제시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
 - 데이터 처리가 복잡한 AI 시대에 걸맞게 ‘규정(rule)’이 아닌 ‘원칙’ 중심(principle-based)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설정하고, AI 프라이버시 전담팀을 신설
 - 또한,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비정형데이터와 SNS 등에 공개된 정보의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, ‘사전적정성 검토제’를 운영하여 AI 기업 등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
 - ④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국익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 활성화
 - EU의 적정성 결정에 이어 영국의 적정성 결정 채택으로 우리 기업이 영국 내 개인정보를 추가 인증이나 절차없이 국내로 이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,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음
- 개인정보보호위원회,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

출처 :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,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은 강화하고, 국민 불안은 줄였습니다 (2024.5.14.)